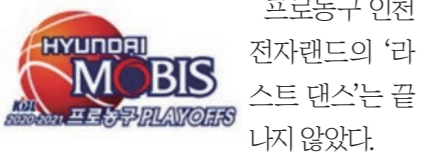


벼랑 끝에서 살아난 전자랜드... 끝나지 않은 '라스트 댄스'

4강 PO 2연패 뒤 2연승
오늘 전주서 5차전 승부
모기업 운영 접으며 매각 작업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라스트 댄스'는 끝나지 않았다. 전자랜드는 27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 4차전에서 전주 KCC에 94-73으로 승리했다. 적지에서 치른 1, 2차전을 모두 졌던 전자랜드는 25일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 역대 PO 최다 점수 차(45점)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이어 4차전까지 내리잡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로써 전자랜드는 2018~2019시즌에 이어 2회 연속 챔피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랜드는 2018~2019시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나섰고, 2019~2020시즌 PO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27일 인천 부평구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인천 전자랜드와 전주 KCC의 4차전 경기에서 94대73으로 승리를 거두며 5차전을 치르게 된 전자랜드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자랜드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 패하면 이번 경기가 팀 매각 전 홈 마지막 경기다.

역대 5전3선승제로 열린 4강 PO에서 1, 2차전을 내리 패한 뒤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팀은 없었다. 마지막 5차전은 20일 오후 7시 전주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자랜드에겐 벼랑 끝 승부였다. 3차전 대승으로 기사회생한 전자랜드가 이날 져다면, 팀 이름을 달고 치른 마지막 경기가 될 뻔 했다.

2020~2021시즌을 마지막으로 모기업이 구단 운영에 손을 떼기로 했기 때문이다. KBL은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올해 1월 1일 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의 스포츠비즈니스 그룹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달 초 마감된 인수의향

서를 바탕으로 전자랜드 구단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도 전자랜드는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3차전 대승에 이어 4차전도 홈 팬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21점 차 완승을 거뒀다.

3차전 영웅이 48점을 폭발시킨 조나단 모트리였다면, 이날 경기에선 김낙현(25점), 차바위(17점), 이대현(12점)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수비에서 전자랜드는 KCC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유도훈 감독도 "선수들이 상대 수비 방법을 안 것 같다"며 "라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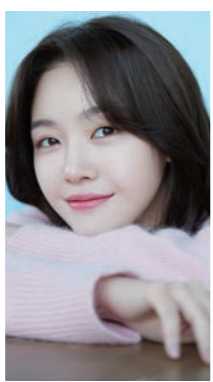
특점이 안 나오면서 상대 공격이 둔화된 걸 느꼈다"고 말했다. 체력에서도 KCC를 압도했다. 고양 오리온과 6강 PO를 치른 강행군에도 상대보다 한 발 더 뛰는 농구로 PO 대만전 드라마를 써가고 있다. 2003년 8월 인천 SK를 인수해 프로농구단을 창단한 전자랜드는 지역의 높은 팬충성도와 명장 유도훈 감독 아래 조직적인 팀 플레이를 하는 구단으로 유명했다. 2014~2015시즌에는 정규리그 6위로 PO에 올라 3위 서울 SK를 3-0으로 제압하고, 2위 원주 동부와의 5차전까지 가는 명승부를 펼쳐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쟁팀들과 달리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늘 약자의 위치에 설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끈한 팀 컬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자랜드란 이름을 달고 치르는 마지막 PO에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컬러로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 비록 전자랜드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라지지만, 그들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방민아,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MBC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가수 겸 배우 방민아(사진)가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 MBC는 28일 방민아의 MBC 새 드라마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출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김지훈이 한준 PD 연출, 김태주 작가 극본의 4부작 드라마로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이다. 헤어진 연인이 위장 커플이 되어 이벤트로 당첨된 커플 여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감성 트립 멜로 드라마다. 지난해 MBC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극찬 받으며 수상했던 작품이다. 방민아는 극 중 영풍, 발랄, 당당한 매력을 지닌 하송이를 연기한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식물은 배신하지 않는



친구와 이별한 이후 하나부터 열까지 버버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백'이 걸리게 된다. 방민아는 2019년 SBS 드라마 '절대 그이'와 2016년 SBS 드라마 '미녀 공심이'에서 열연하며 사랑받았다. 최근에는 뮤지컬 '그날들', 영화 '좋은 말과 최선의 삶'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다는 엄마의 말을 굳건히 믿고 식물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까지 갖게 된 하송이는 감정에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다. 남자 스카이데일리/뉴스스

섹시한 스토리 안에 청춘들의 발랄한 성장기 담았다

웨이브 '유 레이즈 미 업' 윤시윤·안희연·박기웅 출연

배우 윤시윤, 안희연(하니), 박기웅이 웨이브(wavve) 오리지널 드라마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에 출연한다. '유 레이즈 미 업'은 고개 숙인 30대 '용식'이 첫사랑 '루다'를 비뇨기와 주치의로 재회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섹시 발랄 코미디 드라마다. 웨이브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단독 공개 작품에 윤시윤, 안희연, 박기웅이 출연을 확정했다. 윤시윤은 31세 공시생 '도용식' 역을 맡는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다 벼살만 두둑하게 남은 것도 모자라, 비뇨기와 치료

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는데 그만 첫사랑을 주치의로 만나 좌절한다. 고개 숙인 굴욕의 나날을 뒤로 하고, 그가 무너진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다. 안희연은 비뇨기와 의사 '이루다'를 연기한다. 외모도, 집안도 뽕뽕한 유능한 의사인 그녀에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과도한 자신감을 가진 남친이다. 그의 콧대를 꺾기 위해 아주 잘난 첫사랑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만 자신의 병원에서 역변한 첫사랑과 재회한다.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미션에 돌입한다. 웨이브 오리지널 '꼰대 인턴' 이후 1년여 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박기웅은 이루다의 문제적 남친이자 그녀와 같은 건물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도지혁'으로 분한다. 타고난 금수저에



웨이브 오리지널 작품 '유 레이즈 미 업'에 윤시윤(왼쪽부터), 안희연, 박기웅이 출연을 확정했다.

본인 명의 개업에 흠집을 데 없는 비주 얼까지 말 그대로 '다 갖췄' 남자다.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묘한 도취감으로 여친을 늘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졌다.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S 측은 "통통 튀는

섹시한 스토리 안에 사랑과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는 청춘들의 섹시 발랄한 성장기를 담을 예정이다. 올 여름 웨이브에 단독 공개될 '유 레이즈 미 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뉴스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디)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